주식전략 이은택 et.lee@kbfg.com
연구원 이다은 de-lee@kbfg.com

2025-05-13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주식시장, 어디/언제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?

더 뚜렷해진 두 가지 전망

예상대로 중국과 큰 합의가 나왔다. 이로써 두 가지가 명확해졌다.

① 트럼프의 협상전략은 '1기' 때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. 그렇다면 낙관론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더 긍정적 뉴스를 쏟아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. 이번 합의로 낙관론이 급증했다. 향후 몇몇 합의가 추가되면 낙관론이 압도하게 될 것이다. 그렇다면 그 주가 레벨과 시점은 언제일까?

트럼프 1기 당시엔 '90일 유예' 이후 S&P 500이 전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기록할 때까지 '올려치기'가 계속됐다. 전고점쯤 되면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설 곳을 잃어버리고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. 이번 S&P 500 전고점은 6,144pt이다 (5/9 이그전).

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 땐 S&P 500이 전고점을 넘을 때가 기점

자료: LSEG, KB증권 (5/9 이그전 차트 재인용)

주가로는 전고점, 시기로는 6월~7월 주목. 중국은 올해보단 내년에 상대할 듯

시기적으로는 '정상회의' 스케줄을 주목한다. 트럼프는 '탑다운 협상'을 선호한다. 따라서 올해 예정된 정상회의 스케줄을 주목해야 하는데, 6월과 11월에 많다. 문제는 6월에 있는 회의가 G7 (6/15~17, 캐나다), NATO (6/24~25, 네덜란드) 정상회의라는 것이다. 트럼프가 관세/방위비의 타깃으로 삼는 곳이자, 미국 관세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이다. 어제 밤 트럼프는 "무역에선 EU가 중국보다 악랄하다 (nastier)"고 언급했다.

② 중국은 지금 타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해졌다. 지금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중국까지 적으로 두기 어렵다. 따라서 올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합의에 집중하고, 중국은 내년 하반기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대립할 수 있다 (4/30, 5월 전략).

2025년 예정된 정상회의: 6월 말엔 경계감, 11월 말엔 기대감

회의명	일정 (예정일)	개최지
G7 정상회의	2025년 6월 15~17일	캐나다
NATO 정상회의	2025년 6월 24~26일	네덜란드
80차 유엔총회	2025년 9월 23~29일	미국 뉴욕
APEC 정상회의	2025년 11월 예정	한국 경주
G20 정상회의	2025년 11월 22~23일	남아공

자료: 언론 종합, KB증권

"무역에선 EU가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"고 비난한 트럼프

Trump: The EU is 'nastier than China'

U.S. president launches blistering new trade attack against Brussels, as he agrees to cool tariff war with Beijing.

EU는 '중국보다 더 악랄하다'

미국 대통령은 브뤼셀을 상대로 새로운 맹렬한 무역 공격을 시작했으며, 동시에 베이징과의 관세 전쟁을 진정시키는 데 동의했다.

자료: 악시오스, KB증권

1. 미중 합의도 트럼프의 1기 때와 패턴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.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까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
2. 가격 측면에서 보면, 트럼프 1기 때는 증시가 전고점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긍정적 뉴스가 계속됐다
3. 시기적으론 'G7/NATO정상회의'가 있는 6월 중하순이 경계감을 가질만한 시기라 생각한다

투자자 고지사항

-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

KB증권